

올바른 가치전달을 위한 부모-자녀 관계

박 태 수

목 차

- I. 머리글
 - II. 인간에 대한 이해
 - III. 종교에서 추구하는 자녀교육관
 - IV. 부모의 가치 문제
 - V. 부모의 성격 문제
 - VI. 올바른 가치 전달을 위한 부모-자녀 관계
- 참고문헌

I. 머리 글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부모는 무슨 생각과 어떠한 자세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대부분의 부모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지적으로 우수하게, 감성이나 정서는 풍부하게, 그리고 대인관계는 원만하기를 바란다. 어느 부모치고 이러한 소망이 없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고되더라도 자녀의 훌륭한 성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아내고 행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녀에 대한 교육은 오로지 자기 자녀에만 정성을 쏟을 뿐 남의 집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적다. 자기 자녀에 대한 이기주의적 교육결과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초래해도 그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잘 모른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행하는 올바른 교육적 기능을 포기해 버린 것처럼 보인다. 이를테면 식당에서 자기의 어린 자녀가 소란을 피우며 뛰어다녀도 다만 아이의 재롱을 보듯이 흐뭇한 눈길을 보낸다. 주위의 다른 어른 들도 마찬

가지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어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지 어떤지를 잘 모른다. 그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대로 한다. 이미 배울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이러한 자녀교육은 곳곳에서 불행한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해(1994년)에는 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한 청년이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금년들어 지난 3월에는 대학교수가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아버지를 살해한 김성복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와 아버지는 가치관이 너무 달랐다. 나는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했다. 부모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아버지를 죽였다. 그 후 중앙일보의 여론조사를 보면 패륜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물질만능의 풍조(46.0%)’를 들었고, 그 다음이 ‘가정교육 부재(20.8%)’를 들고 있다. 사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 패륜아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한국의 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뚜렷한 가치가 없다고 한다. 김재은(1993)은 한국의 부모의 특성으로, ① 자녀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다. 있다고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거나 ‘자기 밥벌이 하는 것’이다. ② 교육열은 매우 높으나 교육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③ 가족이기주의 포로이다. 제자식 제일주의, 즉 자녀의 행복이나 성취가 곧 가족의 성취라는 생각이며, 개인의 자아실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동일(1993)도 『한국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양육태도』에서 지적하기를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며, 다만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학교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부모들의 권위주의와 물질주의 사상은 학교교육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심성과 교양을 길러주는 전인교육보다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남보다 빨리 출세하는 인간기계를 창출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이홍우(1987)는 『도덕교육에서의 어른의 역할』에서 어른들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어른들은 한편으로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다른 어른들, 특히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어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비난받아야 마땅한가를 생각해 보는 일 없이, 또 주위의 아이들이 있건 없건 가리지 않고 맹렬히 비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른들의 모순된 행동을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른들은 모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에 비해 아이들 자신은 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라게 된다. 그런 생각 속에서 자랐을 때,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도덕적으로 부패한 어른들의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때까지 습관적으로 해오던 어른에 대한 비난이 그대로 옆에 있는 다른 어른들에게 향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모순된 행동의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김민호(1994)는 이러한 부모의 행동을 '역사적 자아 각성'의 측면에서 보고자 하였다. 부모로서 자신의 행위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비추어 나를 찾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행위와 말투를 되돌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부모의 것을 상당히 닮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느껴 그것을 결코 본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은연중에 자신의 부모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현 상황에서 다가올 미래 사회를 내다보고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준비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자신의 가정과 이 사회를 지켜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자녀교육의 시작은 어렸을 때 건강한 성격의 기초가 되는 신뢰감을 길러 주는데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1, 2세부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도덕성이나 책임감의 배양은 성인이 되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적어도 장래에 자기의 자녀가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부모라면, 그 자녀와 더불어 살아갈 다른 아이들도 올바르게 키우는 일에 마땅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즉 각각의 부모는 각각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집단 전체가 자녀의 집단 전체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제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는 제도적인 힘으로는 건잡을 수 없는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단지 폭력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구속하고 격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청소년들에게 폭력이나 비행이 아닌 건강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제는 가정 또는 학교만이 청소년들을 지도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야 한다. 사회는 어른들의 집단이며 동시에 부모의 집단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내자식 남의 자식 가리지 않고 함께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려면 사회의 성인집단 전체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또한 부모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본 주제에서는 (1) 인간에 대한 이해, (2) 종교에서 추구하는 자녀교육관, (3) 부모의 가치문제, (4) 부모의 성격 문제, (5) 올바른 가치전달을 위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인간에 대한 이해

프로이트(S. Freud)에 의하여 시작된 심리학의 한 학파인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신결정론과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비합리적인 힘들, 즉 무의식적 동기나 본능적 욕구 등은 태어나서 5세 까지의 정신-성적 체험들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한다. 인간은 어렸을때의 생활경험이 양식화되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보고,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기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어떠한 감정이나 사고도 원인지워지지 않은 결과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의식의 배후에서 감정이나 사고, 행동 등을 좌지우지하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무의식의 존재는 꿈을 통해서 증명 된다고 한다.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의 모든 경험들, 기억들, 그리고 억압된 욕망과 감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심리치료에서는 이러한 무의식적 동기를 의식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올바른 행동을 방해하는 증세의 의미와 행동의 근본원인과 억압된 욕망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심리학의 다른 학파인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은 자기를 깨달아 아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특한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와 운명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인간의 존재와 운명은 결코 환경이라는 폭력 앞에서 임의로 결정되어진 존재가 아니다. 또한 인간은 세상에 홀로 와서 홀로 떠날 수 밖에 없는 고독한 존재지만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 인간관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 의미있는 관계를 필요로 한다. 의미있는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하면 결국 분리, 비인격화, 소외, 고독 등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완성, 즉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 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인간의 문제는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자유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서 온다. 인간은 여러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선택하여 결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기-결단의 존재이다. 만약 자기-인식의 능력과 자유를 인간에게서 빼앗아 버린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인간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자기 인식과 자유에 의해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니체(Nietzsche)는 자유를 “우리가 태어날 때 본질로서 갖고 나온 내 자신이 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빅토르 프랭클(Vitor Frankl, 1974)도 “인간의 삶은 궁극적으로 문제에 부딪혀 바른 대답을 찾아내려는 인간의 책임을 의미하며, 동시에 개개인에게 끊임없이 부여되는 사명을 완성할 책임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아마도 인간 교육에서 중심적인 논점은 자유와 책임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독특성과 주체성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존재이다. 우리의 주체를 발견하고 내면에 충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의 두려움 중의 하나는 자신의 내부에 주체도 없이 단순히 타인의 기대를 반영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인간이 두려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보잘 것 없으며, 진정으로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내면은 공허하며, 쓰고 있는 가면만 벗어 버리면 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깨닫고, 그것을 말로 이야기하여 서로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면 그 두려움은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은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주체, 즉 진정한 자기를 가지고 불안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불안에 직면하여 이를 체험하고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인간은 관계적 존재(relational being)로 우리의 인간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의 세계 속에 중대한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를 가진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존재도 나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의미있는 관계성을 체험한다. 여기서 관계란 나와 상대방 사이의 감정의 매듭을 의미한다. 감정의 매듭은 머리(이성)로 맺어지기 보다는 가슴(감성)으로 맺어진다.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가슴고리가 있어서 그것을 상대방의 가슴고리에 걸고 싶어한다. 그러면서도 선뜻 자신의 고리를 가슴에서 꺼내지 못하며, 설혹 꺼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고리에 걸지 못한다.

그래서 고리는 있어도 매듭을 짓지 못하여 관계형성에 실패한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다. 부겐탈(Bugental, 1965)은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자신에 대한 신뢰성(authenticity)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신뢰할 만한 존재임을 확신하는 세가지 특성을 제시 했다. 첫째가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깨달아 아는 것이고, 둘째는 순간 순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며, 셋째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자기 존재에 대한 신뢰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길이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해요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III. 종교에서 추구하는 자녀교육관

자녀교육은 위에서 제시한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인간은 책임을 다하는 존재이고, 독특한 주체를 인식하는 존재이며, 타인과의 관계적 존재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실현시키기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부모들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 기독교, 그리고 유교에서 추구하는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자기 이외의 타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스스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바른 삶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정신적으로 '밝음(明)'을 성취하여 현실의 참모습을 바르게 보아야 하고, 현실의 참모습을 깨달았을 때 정신적 참모습이 나타나는 바, 이 정신적 밝음, 즉 '지혜'를 얻는 것이 불교에서 바라는 인간의 행복이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녀교육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박선영, 1993). 첫째, 상대방의 능력이나 상태,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가르친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그 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둘째, 항상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한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

알게하고 이해하게 하며 깨닫게 한다. 세째, 부모는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상황을 모색하고 실천토록 한다. 네째, 인간자체의 근원적인 잘못이 어떻게 오늘의 현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른인생관을 확립하게 한다. 다섯째,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항상 부모의 말씀이 지고(至高), 지선(至善)한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의 결과이다.

이상에서 볼때 불교가 바라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자주적인 인간이다. 이러한 지혜의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혜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는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스승에 해당하는 용어로 불교에서는 '선지식(善知識)'이 있으며, 이는 '좋은 벗'을 뜻한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벗이며 동시에 스승이므로 자녀를 깨우치고 알게 해주되,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의 세계관과 창조론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축으로 하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보고 있다. 인간의 존귀성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을 금했고, 사람을 저주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말도 금하고 있다(김상복, 1993). 따라서 기독교적 자녀교육은 영적 생명을 받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평화속에 조화롭게 살도록 성장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에서는 자녀교육의 중심을 가정에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분명히 부여하였고,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속에서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모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때 경건한 자녀를 기를 수 있다.

기독교에서 바람직한 인간상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녀 교육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다. 첫째는 지혜의 성장이다. 기독교는 언제나 지식보다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수천년 동안 하나님과 인간의 지혜가 수록되어 있는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도록 자녀들을 교육한다. 둘째는 건강한 육체의 성장이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몸을 철저히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세째, 영적인 성장이다. 영원불변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훈은 인생을 풍요롭게 해 주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네째, 사회성의 성장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바로 사회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 오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도 같은 맥락이다.

이상에서 볼 때, 기독교가 바라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간을 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데서 출발한다.

유교에서는 인간을 역사적 존재로 본다. 인간은 지나간 세대의 계승자인 동시에 다가오는 미래 세대의 중개자이다. 역사적 존재로서 인간은 단순히 선인의 지적 문화유산을 계승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인간이다(최근덕, 1993).

유교에서의 바람직한 인간상은 성인(聖人)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교육방법은 첫째, 인간중심의 인간주체교육이다. 말하자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교육이다.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는 자각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 자녀교육을 시작한다. 둘째, 착한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도덕교육이다. 사람은 원초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性善說), 자라면서 생겨나는 욕망을 씻어내는 극기교육이 필요하다. 세째, 배움을 시작할 때 목표부터 설정한다. 사람이 길을 가려면 목적지가 있듯이 배움의 길에도 목표가 있다. 곧 뜻을 세우는 일이다. 높은 이상을 지니고 참된 성품으로 널리 덕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나보다 남을 위하고 내 집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더 생각하는 사람, 의롭지 않은 것을 보면 몸을 던져 막아내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목숨을 던지는 사람 등이 그러한 목표다. 네째, 옛것을 배워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사람이다. 다섯째, 배운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실천을 전제로 한 교육이다. 여섯째, 마음을 바르게 지니고 몸을 닦는 교육이다.

이상에서 볼 때, 유교에서 바라는 인간상은 인간의 존귀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간을 기르는데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뜻을 세우고, 착한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위에서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 기독교, 유교의 자녀교육관을 살펴해보았다. 궁극적으로 이 세 종교는 모두 자녀를 지혜롭고 성숙한 인간으로 기르고자 한다. 부모는 자녀의 ‘좋은 벗’이 되어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인간의 존귀함’

을 깨달아 나를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근본을 둔다.

IV. 부모의 가치 문제

앞 절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종교적 입장에서 자녀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상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는 종교가 추구하는 인간상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고, 후계자인 자녀에게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바라보는 인간상은 특정 종교가 바라는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 또는 비종교인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종교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보다 인간적인 부모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들의 가치를 어느 정도 깊이 전달하여야 하는가? 할 수만 있다면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치에 중립을 지켜야 하고, 자기의 가치판단을 자녀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하며, 부모 자신의 가치체계를 부모-자녀관계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와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 부모의 가치와 신념들을 어떻게 배제시킬 수 있는가? 부모는 부모의 가치를 자녀에게 알게 해야 하며, 부모-자녀관계에서 가치의 문제를 기꺼이 토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부모가 자기의 철학과 중심 가치를 노출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부모는 부모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의무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자녀에게 주입 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삶의 목표를 세울 수는 없지만 자녀에 대한 가치판단을 피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자녀교육의 목표는 부모의 가치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만일 자녀가 부모와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치의 역할에 관한 부모 자신의 대답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두가지 질문을 살펴보자.

- 1) 부모는 자기의 가치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가치와 다른 자녀의 가치와 행동을 선택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
- 2) 만일 자녀의 가치가 그 자신과 타인에게 파괴적이라고 솔직하게 느껴진다면 부모는 어찌하겠는가?

부모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자녀에게 그 자신의 가치를 개발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가치를 대면하여 자녀가 진실로 자기 자신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런 비평없이 부모나 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기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치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 만일 부모가 기독교 신자이고, 선한 삶, 죄, 구원 등에 대하여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그 자신의 신념들은 신앙이 별로 없는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또는 그 자녀가 부모의 신앙적 신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졌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한 신앙적 가치를 가지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

아버지를 살해했던 김성복씨는 부모와의 종교적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아버지의 강요로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러나 그는 얼마 후 아버지를 살해했다. 단순히 종교적 갈등으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종교라는 믿음에 대한 가치 차이는 살인에 까지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종교든 그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을 지혜롭고 성숙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며, 내세에는 극락이 되든 천국이 되든 이상적인 세계로 안내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종교든 그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은 타종교에 대한 비방이나 강요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 김성복씨의 아버지도 자신의 종교를 아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고 종교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가졌어야 했다.

* 만일 결혼하지 아니한 딸이 임신하고 와서 꼭 임신중절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임신중절이 살인이라는 생각으로 부모가 임신중절을 확고히 반대한다면 딸을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임신중절, 즉 낙태를 살인으로 보느냐 미혼모의 장래를 위해 출산하여 입양하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미혼모 개인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자라날 아이의 장래는 더욱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고 살인에 해당되는 낙태를 허용하기란 어렵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성관계로 인한 미혼모의 임신은 그 뒤의 출산으로 인한 양육과 낙태로 인한 살인이라는 심각한 문제와 만나게 된다. 이 때 부모는 그러한 자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태도는 '생명에 대한 귀중함과 책임감에 대

한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다. 어떠한 경위로 임신을 했던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며, 따라서 인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렇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다음 질문으로 '어떤 조건하에 갖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성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전달되어야 한다.

V. 부모의 성격 문제

한편 부모는 성격과 관련된 자기의 가치를 자녀관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자녀교육에서 부모는 부모 자신에게 남아 있는 미결사항과, 인격적인 갈등, 자아방어수단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성격적 요소들이 자녀의 성장적 요인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완전히 탐구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지를 지각한다. 부모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자기인식에 이르지 못한다면 자녀의 궁극적인 변화를 가로막을 수 있고, 부모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녀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부모의 인격적인 갈등으로 자녀의 성장을 방해한 사례를 살펴보자. 삼십대 초반의 컴퓨터 기사는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떠나버렸다. 그는 아내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그녀에게서 떨어지려 하고 냉담하며,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으며, 애정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대학을 중퇴했는데 그 이유는, "교수는 위선자이고 경찰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직장에도 일년 이상 머무르지 못했는데, 그는 상관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평했으며, 그가 자주 하는 말은 "저 빌어먹을 놈은 믿을 수가 없어"라는 말이었다. 그의 이러한 모습들이 상담과정에서 밝혀졌는데, 그는 어린 시절에 불행하게도 부모가 제대로 보살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자주 경험했다. 특히 부모로부터 빈번한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부모를 믿을 수 없다는 깨달음에 도달하였고, 그 결과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던 격렬한 실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되었는데 권위적 인물인 경찰, 선생, 고용자들과 계속하여 충돌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그가 사람을 믿

지 않은 것은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한 현실적인 적응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조차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의 두 아이뿐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에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은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또 다른 성격요인들이 있다. 그것은 지배와 권력의 욕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 자기의 가치기준에 따라서 자녀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자기가 좋은 부모로 대우받고자 하는 욕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욕구들은 부모가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 부모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으며, 존중받으며, 좋은 부모라고 인정 받는 것은 자녀의 삶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부모로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가 자녀지도를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지도를 하면서 직접적이요 건전한 방법으로 자기 완성을 시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좌절을 보상받기 위하여 자녀의 삶을 통하여 대리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부모 자신이 자녀와의 친밀관계를 멀리하고 자기의 불안이나 죄책감, 불확실, 무기력 등의 감정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갖는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겠는가?

자기도취적인 부모에 의해 자녀가 바르게 수용되지 않아서 혼란을 야기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어느 날 Y부인이 침울했을 때, 그녀의 딸이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왔다고 자랑하자, Y부인은 “애야, 너 가서 잠이나 자거라.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너무 지친 것같구나. 선생들은 학생들을 너무 돌보지 않는단 말이야”라고 반응했다. 반면에 어느 날 Y부인이 기분이 좋았을 때, 딸이 오는 길에 남학생들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울면서 말하자, Y부인은 “그 남학생들은 네가 좋아서 그랬을 거야. 다음부터는 그 남학생들이 놀리더라도 크게 신경쓰지 마라”라고 반응을 했다. 결국 그녀의 딸은 한번도 자기의 마음이 제대로 공감받지 못했다. 자기도취적인 부모들은 자녀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부분으로만 생각하므로 딸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는 감정입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부모들은 대체로 감정적 차원에서 자녀에게 부적절하게 대응하며, 자녀들의 감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녀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자란다.

또 다른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 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도와주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며, 자녀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욕망에 매력을 느낀다. 과거에 부모 자신들이 비참한 지경에 빠진 경험이 있었거나 적어도 자신의 삶에 기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겠다고 느껴서 자기탐구의 여정을 체험해 본 부모들에게 그러한 동기가 더 많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도와 그들도 그들 자신의 길을 발견하도록 돕고 싶어 한다. 그러는 동안에 부모들은 자기가 의미있는 존재이며 중대한 인간임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러한 부모의 욕구는 때때로 사랑이라는 가면 아래 분별 없이 마구 줌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A 목사는 아내가 만성적으로 우울에 빠져 있고, 두 아들은 대학을 그만두고 집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담실을 찾아왔다. 그는 상담자에게 하소연하기를 “나는 내 식구들과 그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나는 한시도 그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은 싫으면서도 아내를 위해 극장이나 오페라에 갔으며, 두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주고 보험료까지 지불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모습들이 상담과정에서 밝혀졌는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알콜중독자이자 호색가인 아버지로부터 전혀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가능한 한 아버지와는 다르려고 했다. 그래서 동정심이 많고 관심을 기울이는 가장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그는 또한 아내를 ‘나의 새끼 고양이’라고 불렀으며, 덩치 큰 아들은 ‘나의 귀여운 꼬마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가능한 한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는 그의 욕구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적절히 표현하는 유연한 대응태세를 취하지 못했다. 그는 필요한 때에 주지 않는 것보다 불필요한 때에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쁘며, 독립성을 길러주는 것이 마냥 보살피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욕구와 분노와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자기의 희생만큼이나 자기 가족의 정신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따라서 사랑은 부드러운 용인 만이 아니라 맞대놓고 진지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끊임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K부인의 이야기

를 들어 보자. 집단활동에서 K부인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이렇게 호소했다. “저는 한 가정의 아내이고 두 자녀의 엄마지만 가정이 따뜻한 보금자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처녀 때는 결혼이 무척이나 하고 싶었고, 그래서 결혼 초에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점차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다보니 이제는 지치고, 외로워서 이 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K부인의 이러한 모습들이 상담과정에서 밝혀졌는데, 그녀는 네살 때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거의 받아보지 못했다는 기억을 갖고 있었다. 남동생이 태어난 이후로는 거의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지 못했으며, 자다가 깨어 보면 늘 부모의 발치에서 자는 자기를 보곤 했다. 한번은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퍼붓는 새벽에 놀라 잠을 깨어 보니 여전히 어머니 발치에서 자고 있었고, 너무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러한 자기를 보고도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면서 남동생이 놀라서 깨어나 않을까 하고 다독거리는 모습에 무척 외로웠다는 것이다. K부인은 또한 어린 시절 매우 착했으며, 아무리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마다 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

그녀는 어머니한테 다가가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했으나 어머니가 받아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했다. 또한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불량한 아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관심을 받지 못할까봐 싫은 일도 거절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 이처럼 어머니에게 대접받지 못한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처음 만난 남자가 보여준 친절에 매혹되어 다른 면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하였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친절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강한 욕구가 일어나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이제는 스스로 이러한 자기를 보게 되니까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된 것이다. 결국 그녀는 어린 시절에 겪은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성인이 된 지금도 끊임 없이 관심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로 인해 지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성격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나 부모의 가치와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기는 어렵다. 비록 부모가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삶의 가치를 형성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닌 인격적인 갈등 때문이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약속불이행, 자기도취적 감정에 의한 판단, 과잉 사랑과 무관심 등의 성격적 결함들은 곧 그들의 삶의 가치의 바탕이 된다.

VI. 올바른 가치전달을 위한 부모-자녀 관계

부모교육에 관한 지식을 얻고, 대화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온전한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올바른 자녀 지도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 인격자로서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자녀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받아들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율적 결단을 내리게 하며, 자신의 결단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도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자유와 책임을 인정함이 없이는 자녀지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도와서 그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기를 회피해 왔던 자유와 책임을 받아들여 자유로운 선택을 하였을 때 오는 결과를,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신뢰하도록 격려해주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자녀는 무능하게 되어 부모에게 의존하는 종속적 인간이 되기 쉽다.

이와 같이 자유와 책임의 조화로운 인간이 될 자녀에게 부모는 자녀와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야 할까?

첫째, 부모는 자각을 통해 자녀를 만나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만나면서 끊임 없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구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가? 내 행동은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하면서 자녀를 만나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에는 자녀가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순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자녀에게 말해야 한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겠지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부모는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지녀야 한다. 자아존중감을 지닌 부모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소중히 여기므로 자신이 부모로서 어떠한 상태에 있든 이를 극복하고 자녀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자녀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둘째, 부모는 자녀에게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부모의 중심 기능은 자녀들에게 그들 자신들의 장점을 깨닫게 해 주고, 그 장점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하며, 그들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의 인간인가를 분명

히 밝혀주는 것이다. 자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해결은 부모의 일차적인 기능이 아니며, 오히려 부모는 자녀가 솔직히 자기의 행위와 삶의 스타일을 직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자기들의 삶의 본질을 수정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지지해 주고 온정을 베풀지만, 때때로 도전과 대결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본질적인 기능은 자녀에게 솔직하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하는가?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부모-자녀 관계가 진실하게 이루어지려면 자녀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말은 자녀를 지금 이 순간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존 정보로 만나거나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만나게 되면 자녀를 한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가지 성향, 즉 학교성적, 선악에 관련된 행위, 교우관계, 생활습관 등 어느 부분으로 만나게 된다. 이러한 만남은 자녀와의 진실한 관계를 방해하게 된다. 부모가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갈 때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관찰하고 검토하여 자기에게 합당한 것을 발견하고, 그 피드백에 기초하여 자기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 주라드(Jourad, 1971)는 이렇게 말한다. “속임수는 더 큰 속임수를 낳고, 자기노출은 자기 노출을 낳는다.”

세째,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자녀 자신이 단순히 외부적인 환경의 힘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존재가 아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자녀는 자신의 존재가 신뢰롭게 될 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동시에 자신을 심리적으로 속박해 오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사슬을 풀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인식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향하여 무엇을 지금 결단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자녀들이 갖고 있는 불행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여 인생의 갈등에 대한 해답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내고 발견하려 하는 대신에 부모들이 기대하는 그것이 되려고 하는데 있다. 자녀들은 자발적이고 자기동기화된 개인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모의 관심이나 간섭은 오히려 자녀의 사고를 방해하고 방어적이 되도록 조장하며, 스스로 열의있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유아기적 의존상태에 머물게 한다.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느긋하게 지켜볼 때, 자녀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된다.

네째, 부모는 자녀가 전통적인 가치들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가치체계를 갖지 못

하고 가치의 진공상태에 있을 때 자녀의 존재와 삶의 방식에 일치하는 가치체계를 창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능력을 신뢰하여 자녀가 그 자신의 가치체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자녀는 얼마간 당황하며 명백한 가치의 부재로 불안을 경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는 스스로 결단하는데 따르는 불안을 두려워하여 의뢰심과 안전을 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면, 자녀는 새로운 가치의 근원을 발견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속에 있음을 믿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기능은 자녀 자신이 고통 가운데서라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들의 고통을 제거시켜 주거나 최소한 불안을 감소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그러나 부모들은 단순히 불안 감소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얼마동안 자녀의 불안을 고조시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너는 불안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너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불안에 마주설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자녀가 불안을 경험하지 아니한다면 변화되고자 하는 자극도 약할 것이다. 불안은 새로운 행동을 습득할 때 오는 위험을 참아낼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어질 수 있다.

다섯째, 부모는 자녀를 인간 대 인간의 만남과 공동책임을 지는 만남 자체를 중시 하되,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을 중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남의 내용은 자녀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보다 자녀의 현 시점의 경험 자체를 중시하고, 부모는 확신에 넘치는 자기 노출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에게 확신감을 갖고 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격려해야 한다. 진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가깝게 결속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는 인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녀에게 현재의 생활을 보다 깊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섯째, 부모는 때때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중대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영향력의 문제는 인격자로서 부모의 순수성의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가끔 자녀의 현실 도피적인 태도나 비합리적인 사고를 대면하여 직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모가 이러한 행위에만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불필요하게 자녀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부모는 때때로 해석적이 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때에는 자녀 자신이 자기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어떤 때에는 매우 지시적일 수도 있다. 부모는 여러가지 상황 또는 조건에 따라 자녀에게 적절한 행동통제를 해야 한다.

일곱째,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자 한다면, 그 순간 부모 자신의 걱정거리나,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기꺼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존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구체적이고 좋은 증거이다. 그렇게 될때,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알고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자녀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 많이 알게 될수록 더욱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녀는 부모가 그를 소중히 여기고 비범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부모에게 똑같은 존경을 보여주게 된다. 가치있는 것이 가치있는 것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진지한 경청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고 언제나 사랑의 표시이다.

참 고 문 헌

- 김동일(1993). “한국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양육태도”, 『21세기를 준비하는 부모교육』, 제11차 사회교육심포지움,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 김상복(1993). “기독교에서 보는 바람직한 자녀교육”,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 부모교육자료4
- 김용환(1991). “윤리와 종교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5집,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재은(1993). “한국적 부모교육의 탐색”, 『21세기를 준비하는 부모교육』, 제11차 사회교육심포지움,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 김정자(1994).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가?” 『1994 세계가정의 해 기념세미나 자료』,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 김창선 역(1994). 끝나지 않은 길. 소나무
- 박선영(1993). “불교와 부모의 자녀교육”,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 부모교육자료4
- 박인덕(1994). 가정윤리관 정립을 위하여, 제주도북제주군 여성단체 특강자료
- 오성춘(1990). 상담학개론,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 이홍우(1987). “도덕교육에서의 어른의역할” 『11인의 교육수상』, 교육과학사
- 최근덕(1993). “유교에서 본 바람직한 자녀교육”,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 부모교육자료4